



철강 통상 리스크 점검으로 수출 총력 대응

- 철강업계와 수출입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14.(목) 오전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철강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지속 심화되는 추세로 금번 간담회는 대내외 수출입 리스크에 따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EU에 철강 제품 수출 시 내재 탄소배출량 보고 등이 의무화된바 참석자들은 주요 기업의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 철강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출입 리스크 극복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중 제1회 「철강 수출입 현안 워킹 그룹」 개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함께 현안별 분석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4월부터 권역별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여 중소·중견 철강사를 지원한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탄소 중립 및 각종 무역장벽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철강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본원 경쟁력 제고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3-4692)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참 고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 개요

- (추진배경) EU CBAM 보고의무 개시, '24.11월 美 대선 등 철강 관련 통상환경 변화 지속 →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일시/장소) '24.3.14.(목) 10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한국철강협회, 철강기업 8개사
 -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기후에너지통상과장
 - (업 계)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동국제강, 동국씨엠, 세아제강, TCC스틸, 아주스틸
- (주요내용) 철강 통상환경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① '24년 철강 수출입 동향 및 통상현안 (철강협회)
 - ② 주요기업 EU CBAM 대응 현황 (참여기업 전원)
 - ③ 수출입, 통상 현안 관련 애로 및 대응방향 (참여기업 전원)

※ 세부 시간계획(안)

	내 용	비 고
10:00~10:03 (' 3)	모두발언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10:03~10:13 ('10)	'24년 철강 수출입 동향 및 통상현안	철강협회
10:13~10:43 ('30)	주요기업 EU CBAM 대응 현황	참석자 전원
10:43~11:27 ('45)	수출입 통상현안 애로 및 대응방향	참석자 전원
11:27~11:30 (' 2)	마무리발언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